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기성찰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고예정¹, 김신향², 박시현^{3*}

¹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신성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³중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Effect of Nursing Students' Abilities of Communication and Self-Reflection on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Ko, Yejung¹, Kim, Sin Hyang², Park, Sihyun^{3*}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hinsung University

³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자기성찰이 정신질환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기성찰 및 정신질환태도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의사소통능력과 자기성찰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과 자기성찰은 정신질환태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이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49%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간호학과 교육과정 안에서 의사소통능력과 자기성찰 수준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지속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의사소통능력, 자기성찰, 정신질환, 정신질환태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abilities of communication and self-reflection on their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to October in 2020. In total, 180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170 questionnaires among them were used for analysis, excluding 10 with poor responses. As a result,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ability, self-reflection, and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ability and self-reflection were major factors influencing their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which explained 49% of the total variance. Continuous education to improve students' communication ability and self-reflection level within the nursing department's curriculum will be needed to pursue nursing students' positive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Also, additional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students'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will be required.

Key Words :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ability, Self-Reflection, Mental illness, Attitude on mental illnes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Gwangju University Research Grants in 2021.

*Corresponding Author : Park, Sihyun(sh8379@cau.ac.kr)

Received July 1, 2021

Accepted September 20, 2021

Revised August 2, 2021

Published September 28, 2021

1. 서론

1.1 연구필요성

정신질환은 다양한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여 사고, 인지, 감정, 행동과 관련한 임상적인 증상을 일컫는다[1]. 정신질환자들은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종종 소속된 사회 내에서 편견, 낙인 및 배제됨을 경험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관점이며 치료적인 개념 보다 소속된 문화권에 영향을 받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학습되는 주관적 태도로 지역의 문화와 가치관 계층, 직업, 성격의 특성, 정신질환에 대한 경험, 교육수준 등의 여러 요인을 통해 결정된다[2]. 이러한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및 재활과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에 있어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이다[2, 3].

간호사는 자신을 치료적 도구로 사용하며 치료적 의사소통과 관계형성을 통해 환자의 치료에 함께하게 되고 건강을 위한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간호사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대상자의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4]. 이러한 이유로 간호사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간호대학생 시기에 정신간호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통해 유도할 필요가 있다[3,5]. 간호대학생들은 정신간호학 실습 시 대상자들의 정신병적 행동에 대한 공포와 좌절감으로 스트레스를 겪으며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대상자들과 치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5]. 또한 정신간호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있으나 실습 전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미디어를 통해 획득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있어 정신질환자들은 위협적 일 것 이라는 선입견을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처럼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정신간호의 이론과 실습과 연관이 되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4,5]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 간호대학생 시절부터의 경험, 자기성찰과 이해, 의사소통 등을 교육에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7].

정신질환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치료적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긍정적 치료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치료자의 높은 공감능력, 자기인식과 이해,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의 심리적 특

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8].

이 중 의사소통능력은 개인적으로 효과적이고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맥락과 사회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상대방의 말을 해석하고 자신의 의도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향상이 가능하다[9]. 선행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공감능력, 자기수용, 자기인식,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10]. 간호사는 치료적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을 치료적 도구로 사용하여 대상자의 증상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만큼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10].

또한 간호대학생이 정신질환자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기성찰은 자신의 사고, 감정과 행동에 대해 돌아보며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성찰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자기성찰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치료적 도구로서 자신을 잘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11]. 자기성찰의 경험은 알아차림을 통해 자기이해와 타인이해를 확대하고 대인관계를 증진시키며 자기통찰을 이루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비로소 자신을 이해 할 수 있게 되며 타인의 행동, 감정, 의도와 동기를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상호간의 갈등과 오해를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2]. 대학생의 자기성찰은 피드백으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새로운 목표를 수정하게 하여 더 나은 학업성취와 정서적 성장을 가져오는 필수적인 요소이다[13].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연령, 종교, 성별, 교육 수준과 같은 인구학적 변수와 함께 전공과 내적인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5] 내적 심리적 특성인 자아상태[4], 자아존중감[7], 공감능력[3,7]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성찰과 같은 심리적 특성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루어지지 않았기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자기성찰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관련성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자기성찰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기성찰과 정신질환태도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기성찰과 정신질환태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자기성찰과 의사소통능력이 정신질환태도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도구

2.2.1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허경호[15]가 개발한 도구를 배주영[16]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5항이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음을 의미한다. 허경호[15]가 개발 당시 Chronbach' α 는 .72, 본 연구는 .89이었다.

2.2.2 자기성찰

본 연구에서는 Song과 Kim[17]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1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성찰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α 는 .83, 본 연구는 .89이었다.

2.2.3 정신질환태도

정신질환태도는 Madianos et al.[18]가 개발한 도구를 최고야와 최은정[19]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7문항이며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질환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Chronbach'

α 는[18]의 개발 당시 .89, 본 연구는 .90이었다.

2.3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간호학과 재학생이다. 대상자의 표본 수는 G*Power 3.1.9.4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은 중간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 3개(의사소통능력, 자기성찰, 정신질환태도)로 하였을 때 119명 산출되었다. 설문지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180부를 배포하여 응답 내용이 부족한 10부를 제외한 후 최종 170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 자료수집 절차는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에 대해 구두로 승인을 받은 간호대학에 본 연구자가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이고, 설문 소요 시간은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ersio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요 변수의 정도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의사소통능력, 자기성찰, 정신질환태도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자기성찰이 정신질환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0)

Characteristics	Frequency (%)	
	Gender	Male
	Female	142(83.5)
Grade	1st	80(47.5)
	2nd	30(17.6)
	3rd	25(14.7)
	4th	35(20.6)
Religion	Yes	95(55.9)
	No	75(44.1)
Satisfaction of major	Satisfied	122(71.8)
	Dissatisfaction	48(28.2)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의 나이는 평균 21.4세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학생(83.5%)이 남학생(16.5%)보다 많았다. 학년에는 1학년(47.5%)이 가장 많았다. 종교는 있는 집단(55.9%)이 없는 집단(44.1%)로,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71.8%)가 높게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자기성찰, 정신질환 태도의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자기성찰, 정신질환 태도의 정도는 Table 2와 같았다. 의사소통능력 전체문항의 평균은 3.87점, 자기성찰은 3.82점, 정신질환태도는 3.30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the Major Variables (N=170)

Variables	Mean ±SD	1 2 3		
		r (p)		
Communication ability	3.87 ±0.56	1		
Self-Reflection	3.82 ±0.44	.65 ($<.001$)	1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3.30 ±0.93	.36 ($<.001$)	.22 (.016)	1

3.3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자기성찰, 정신질환 태도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정신질환태도와 의사소통능력($r=.36$, $p<.001$), 자기성찰($r=.22$, $p=.016$)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Table 2). 의사소통능력과 자기성찰($r=.65$, $p<.001$) 관계는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3.4 대상자의 정신질환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장의 정신질환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산출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8.665$, $p<.001$), 다중회귀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은 1.826으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성

Table 3.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es in Nursing Students (N=170)

Variables	B	S.E	β	t	p	Adj R ²
Communication ability	.31	.07	.36	4.58	$<.001$.49
Self-Reflection	.35	.03	.50	10.87	$<.001$	

F=8.67($p<.001$), Durbin-Watson = 1.826

이 없었고, 분산팽창인자(VIF) 범위가 10을 넘지 않아 분회귀분석에서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정신질환태도에 의사소통능력($\beta=.50$, $p<.001$), 자기성찰($\beta=.27$, $p<.0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49%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자기성찰이 정신질환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에 태도를 긍정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3.87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선행연구 3.61점[20], 3.57점[1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간호대학생이라 할지라도 평가도구, 측정 당시의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을 조사한 선행연구결과 3.06점[21]과 비교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전체적인 대학생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사에게 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하며 대화의 맥락과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고 대상자의 말을 정확히 해석하여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전달해야 하기에 중요한 역량이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과 교육과정 내에서 간호의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교과 외 활동 등을 통한 반복적인 학습과 훈련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성찰은 5점 만점에 3.82점으로 나타났다.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3.60점[2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성찰은 자신에 대한 강점과 약점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메타인지의 사고과정으로 자신이 가진 욕구, 사고와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23]. 즉,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자기성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선행연구에서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성 요인 중 긍정적인 자기이해와 자기조절[20], 자기인식[25] 등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이 자기성찰에도 함께 영향을 준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3.30점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태도를 조사한 Har[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사용한 척도가 다르기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Kim[3]의 연구와 일반인 중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Kim[25]의 연구,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Choi와 Choi[18]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수준이 긍정적이기도 부정적이기도 않은 보통수준에 해당한 것과 유사하다.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교육,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험, 개인의 성격과 집단의 문화와 가치 등과도 연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23]. 간호대학생은 차세대 간호사로서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는 최근의 사회에서 대상자를 간호하게 되는 만큼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다른 집단보다 더 요구된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일반인인 농촌지역 주민[23]과 초등학교 교사[18]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이 정신질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성찰은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성찰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성찰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본 선행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기존 선행연구에서 자아상태[3]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8]과 같은 내적인 심리적 특성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공감능력[8,10] 자아존중감[8] 자기수용[10], 자기인식과 타인인식[25,26]과 내적인 심리적 특성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주요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공감능력, 대인관계 역량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11]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과 자아존중감[8]이 정신질환에 대해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런 요인들과 상관관계가 있는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성찰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준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성찰은 정신질환 태도에 설명력이 49%로 매우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성찰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그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간호학과 교육과정 내의 의사소통 관련 이론 및 실습 교육 시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 인식 개선의 항목들을 접목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자기성찰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자기성찰과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학생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의 관련 요인을 파악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성찰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성찰은 정신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라는 관련성을 밝혀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성찰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간호학과 교육과정 내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을 구성 할 때 의사소통과 관련 교육에 접목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전체 간호대학생으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어 추후 반복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성찰 수준을 강화하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며 정신질환 태도 및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요인 밝히는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REFERENCES

- [1] H. S. Park, et al. (2020). Psychiatric nursing: contemporary practice, 6th edition. Hyunmoon, Seoul.
- [2] E. J. Choi & G. Y. Choi. (2015). The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of University toward Mental Illness using Korean Version of ASMI Scale. *Journal of Wholistic Nursing Science*, 8(1), 163-174.
- [3] M. J. Kim. (2018). The effect of empathy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on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16(3), 9-15.
- [4] H. S. Kim. (2005). Nursing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Mental Illness and Ego State according to Psychiatric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4(3), 276-284.
- [5] C. H. Noh. (2000). Comparative study on the cognition and attitudes toward the mental illness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9(2), 145-155.
- [6] S. H. Choi & E. K. Byun. (2020). The lived experiences of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6(4), 21-30.
- [7] H. S. Kim & M. R. Eom. (2005). Nursing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mental illness and ego state according to psychiatric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4(3), 276-284.
- [8] T. H. Ha. (2020) Convergent influence of self-esteem and empathy ability on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a c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5), 357-365.
- [9] H. J. An et al, (2018). Human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3th edition, Sumunsa. Seoul.
- [10] J. I. Kim. (2021).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Skil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3), 118-128.
- [11] E. J. Oh.. (2021). Effect of Communication Ability on Relationships among Self-awareness, Empathy,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2), 549-560.
- [12] J. W. Jung.. (2020).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Programs on Novice Counselors' Self Reflection and Self Esteem.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12(1), 97-121.
- [13] Y. H. Yang. (2021). Effects of the Enneagram Group Counseling Program on Self-refle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Counseling 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2(1), 1793-1808.
- [14] Y. R. Ha & W. S. Sohn. (2021). Relationships of College Students' Feedback Seeking Behavior with their Feedback Seeking Motive, Self-Refle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Curriculum Evaluation*, 24(2), 127-145.
- [15] G. H. Hur. (2003).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7(6), 380-408.
- [16] J. Y. Bae. (2016). *Experiences of Clinical Nurse in Overcoming Conflict with Fellow Nurses* Doctoral's thesis, Pusan: The Graduate School of Graduate Kosin University.
- [17] M. O. Song & H. Y. Kim. (2018).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elf-Reflection and Insight Scale for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5(1), 11-21.
- [18] Madianos, M., Economou, M., Peppou, L. E., Kallergis, G., Rogakou, E., & Alevizopoulos, G. (2012). Measuring public attitudes to severe mental illness
- [19] G. Choi & E. J. Choi (2015). Attitude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toward Mental Illnes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4(2), 107-115.
- [20] J. H. Lim & M. H. Choi. (2021). The Influences of Character Factors on the Communication Skill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1), 303-315.
- [21] H. J. Koo & H. J. Moon. (2019). The Effects of Communicative Competence,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Family Strengths on Interperson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8), 224-239.
- [22] Y. R. Ha & W. S. Sohn (2021). Relationships of College Students' Feedback Seeking Behavior with their Feedback Seeking Motive, Self-Refle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4(2), 127-145.
- [23] Yan, Z. (2018). The self-assessment practice scale (SaPS) for student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studies. *The Asia-Pacific Education Researcher*, 27(2), 123-135.
- [24] D. Y. Lee. (2015). *Factors Influencing Public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s Mental illness*. Master's Thesis, Seoul: The Graduate School of Graduate Catholic University.
- [25] E. J. Oh, S. H. Ko, J. Y. Kim & S. R. Kim. (2015).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1(4). 426-434
- [26] S. J. Park, J. S. Kang, G. H. Kim, J. Y. Park & G. R. Yang. (2019). Effect of Self-Awareness and Empathy on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 *Korean J Health Commun*, 14(2). 103-108.

고 예 정(Ko, Ye-Jung)

[정회원]



- 2014년 2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중독예방간호
- E-Mail : yjko@gwaungju.ac.kr

김 신 향(Kim, Shin Hyang)

[정회원]



- 2014년 8월 :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 2018년 2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 박사)
- 2018년 9월 ~ 현재 : 신성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노인 정신보건
- E-Mail : kimsin210@shinsung.ac.kr

박 시 현(Park, Si-Hyun)

[정회원]



- 2015년 6월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Nursing (PhD.)
- 2020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여성건강, 폭력 및 학대 피해자 간호
- E-Mail : sh8379@cau.ac.kr